사료·간식

고양이 사료·간식의 한국 수입

한국에서 고양이 사료와 간식은 식품이 아니라 **사료**로 분류되고, 그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. 실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, 그리고 시작하려면 브랜드에서 무엇을 보내주셔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.

분류가 왜 중요한가

한국 진출 경로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배합이나 포장이 아니라 **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가**입니다. 건사료, 습식 파우치, 동결건조 간식, 덴탈 스낵은 모두 「사료관리법」상 사료로 취급됩니다. 포장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적혀 있어도 분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.

실무적으로는, 물건이 그냥 통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, 선적 건별로 신고가 들어가며,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경우 출고 전에 검역 절차를 거칩니다.

절차

01 **제품 검토**

원료 목록과 성분 등록 사항을 먼저 봅니다. 특정 원료는 경로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, 항구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서류에서 확인하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.

02 **사료 수입업 등록**

브랜드가 아니라 수입자가 보유하는 등록입니다. 저희 쪽에서 한 번 처리하며 브랜드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.

03 **성분등록 대상 확인**

개별 제품이 성분등록 대상인지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. 추정하지 않고 제품별로 확인합니다.

04 **검역 (해당 시)**

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 이 단계에서는 원료만큼이나 원산지 국가가 중요합니다.

05 **수입 신고**

선적 건별로, 동봉된 서류와 함께 신고합니다. 신고번호와 로트번호를 보관해 두어 이후 채널이나 관계기관이 요구할 때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.

06 **한글 표시사항**

채널로 출고되기 전에 부착합니다. 제품명, 원료명, 중량, 유통기한, 수입원, 원산지, 해당하는 경우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.

> **확인 필요** 요구사항은 제품별로 정해지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선적 전 개별 품목에 대해 저희와 확인하시는 절차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.

먼저 보내주실 것

원료 목록	첨가물 포함, 함량 순 전체 목록. 경로를 결정하는 서류입니다.
성분 분석표	조단백질, 조지방, 조섬유, 조회분, 수분.
원산지 및 생산 시설	브랜드 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제조 국가와 시설.
포장 디자인 및 규격	한글 표시사항이 기존 포장의 필수 정보를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	운송 중 온도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포함.
샘플	국내 고객에게 제안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용해 봅니다.

한국 포장에 쓸 수 없는 표현

사료는 질병의 예방·치료·완화를 표방할 수 없습니다. 해외 포장에서 의약품처럼 읽히는 문구는 한국용으로 다시 쓰는 경우가 많고, 런칭이 늦어지는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.

-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문구는 번역이 아니라 대체가 필요합니다.
- 근거 없는 최상급 — “최고”, “1위” — 은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.
- 상세페이지와 광고 문구는 게시 후가 아니라 게시 전에 검토합니다.

필인 제이에이치씨 — 고양이용품 전문 수입·유통

대표자 **권혁진** · 사업자등록번호 **707-11-02726**

전화 +82 70-4581-4211 · Email sales@fillinjhc.com · 개인정보처리방침